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3년 9월 2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인 윤일환
디자인/제작 비온후(051-645-4115 / beonwhobook@naver.com)

학사 일정

9.2(월)	2학기 개강
9.2(월) - 6(금)	2학기 수강정정
9.23(월) - 27(금)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9.27(금)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
10.10(목)	2013학년도 전기 학위청구심사용 논문제출
10.21(월) - 25(금)	2학기 중간고사
11.18(금) - 12(화)	겨울계절수업 수강신청
12.11(수) - 17(화)	2학기 기말고사
12.16(월) -	2014학년도 국·영문교수계획표 입력
2014.1.10(금)	
12.18(수)	동계휴가-계절수업 시작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3일(금) 오전 10시 30분 경암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146명, 석사 808명, 박사 149명이 배출되었다. 인문대학에서는 학사 139명, 석사 36명, 박사 13명 등 총 188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학사보고, 총장 학위수여식사, 총동문회장 축사, 학위 수여, 축하 연주, 교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기섭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끊임없는 자기 연마와 전문성, 성실함, 휴머니즘, 나눔의 정신” 등을 통해 원대한 목표에 다가설 것을 강조하며 “더 넓은 사회로 나가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Contents

2013학년도 삼성드림클래스 여름방학 캠프 개최



여름방학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대학교와 삼성드림클래스 사업단이 7월 24일(수)부터 8월 13일(화)까지 우리 대학 인문관과 밀양캠퍼스에서 여름방학 캠프를 진행하였다. 중학생 600명이 참여한 이번 여름방학 캠프는 부산캠퍼스와 밀양캠퍼스 기숙사에서 각각 300명씩 생활하면서 창의적 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삼성드림클래스를 통해 선발된 부산대 학생교사 90명 등 총 180명의 학생교사들은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어와 수학 교과목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멘토링을 통한 인성교육 및 심리·진로상담도 실시했다. 아울러, 부산대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전공자들은 합창, 모듬북, 힙합댄스, 서양화, 한국화 등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해 참가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주었다. 한편, 삼성 측에서는 방학 중 인문관 전체 강의실 사용을 양해해 준 인문대학을 위해 인문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 2천여만 원을 기탁하기로 하였다.

인문대학-러시아 카잔연방대학 간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부산대학교 인문대학과 러시아 카잔연방대학은 2013년 4월 10일(수) 국제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학문적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으며, 김성진 인문대학장과 라이나 라티포프 카잔연방대학 대외관계부총장이 각각 협정서에 서명했다. 5월 16일(목)부터 한 달 간 이번 협정체결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진전이 인문관 로비에서 열렸는데, 카잔



연방대학과 카잔시의 주요 경관을 담은 30여개의 작품 사진이 전시되었으며 오프닝사에는 오스마코프 러시아 총영사 내외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부산대, BK21 플러스사업 '국립대 1위, 전국 3위' 쾌거 27개 사업단(팀), 169억9000만 원 지원 / 인문대학은 영어영문학과·한문학과 선정

부산대학교가 석·박사급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인 'BK21 플러스사업'에서 국립대 1위의 쾌거를 올렸다. 부산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8월 16일(금) 발표한 'BK21 플러스(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사업'의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사업' 선정 결과, 모두 27개 사업단(팀)에 169억 9,0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선정 사업수와 지원액 규모 모두 국립대 중



1위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사업단(팀)수 3위, 지원액 규모 4위다. 부산대는 이번 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12개, 인문사회분야 3개 등 15개 사업단(대형)과 응용과학 3개, 인문사회 9개를 포함한 12개 사업팀(소형) 등 전 분야에 걸쳐 모두 2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인문대학은 영어영문학과와 글로벌영상번역학의인재교육·연구혁신사업단과 한문학과와 동아시아한문고전번역및전통지식기획전문기양성사업팀이 선정되었다. 이로써 부산대는 향후 7년간 매년 석사과정생 월 60만 원, 박사과정생 100만 원, 박사후과정 등 신진연구자는 250만 원 등 총 169억9,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64개 대학의 195개 사업단과 280개 사업팀에 2,500억 원을 투입해 석·박사급 창의인재 약 1만8,500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BK21 플러스사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했다.

인문대학 학생회 2013년 여름농활 실시



인문대학 학생회에서는 6월 24일(월)~7월 1일(월) 7박8일간 여름농활(농민 학생연대활동)을 다녀왔다.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언어정보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한문학과 등 총 7개과 약 130명의 인원이 각각 함양군 외마, 평촌, 관동, 중기, 하대평, 옥산, 보각마을로 배정되어 농촌의 일을 돕고 농민들의 삶을 배우며 농촌의 현실을 느끼고 돌아왔다.



대학원 학술상 시상식



연구 활동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주는 2013학년도 대학원 학술상 시상식이 6월 5일(수) 인덕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박사과정(대학원 학술상) 7명과 석사과정(대학원 우수논문상) 5명 등 총 12명이었으며, 박사과정 수상자에게는 100만원, 석사과정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각각 수여되었다. 인문대학에서는 중어중문학과 박사졸업생인 고혜림(지도교수: 김혜준)이 대학원 학술상을, 영어영문학과 석사 졸업생인 이지아(지도교수: 윤일환)가 대학원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제1회 인문대학 명사초청특강 개최



인문대학 학생들의 인문학적 상상력 및 창조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2013학년도 제1회 인문대학 명사초청 특강이 10.16 기념관에서 열렸다. 5월 6일(월)에 개최된 이번 특강에서는 범어사 주지인 수불스님이 「'참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불자교수회, 불교학생회 등이 후원한 이번 특강은 교직원, 학생, 불교신도 등 청중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하계 인문대학 교수 연수회 개최



2013학년도 하계 인문대학 교수 연수회가 6월 19일(수) 1박2일의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인문대학 교수, 객원교수 및 행정실직원 등 인문대 교직원 28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전라남도 흥도에서 열렸으며, 인문대학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국립공원 흥도 현지의 자연경관 탐방 등 짧았지만 알찬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인문대학 학과장 명단

인문대학 12개 학과 가운데 2개 학과의 학과장이 2013학년도 2학기부터 교체된다. 각 학과와 협동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총괄할 학과장과 전공주임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국어국문학과장 이재봉 교수
- | 중어중문학과장 김혜준 교수
- | 일어일문학과장 오경환 교수
- | 영어영문학과장 이상도 교수
- | 불어불문학과장 전광호 교수
- | 독어독문학과장 박정환 교수
- | 노어노문학과장 최동규 교수 (신임)
- | 한문학과장 정철현 교수 (신임)
- | 언어정보학과장 권연진 교수
- | 사학과장 유재건 교수
- | 철학과장 손영삼 교수
- | 고고학과장 배진성 교수
-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협동과정 전공주임 박소영 교수

손수레 끝에 매달린 행복

김태호

“생명(Life), 자유(Liberty) 그리고 행복의 추구(Pursuit of Happiness!)”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 경구는 미국 독립선언문(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화배우 윌 스미스(Will Smith)와 그의 실제 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 “행복을 찾아서(In Pursuit of Happiness)”의 주제가 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인들이 행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사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그러면,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 행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지금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늘 자신이 없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늘 영어로 인해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 한국이 처한 현실로 인해 영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도 높은 영어 점수가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TOEIC이나 TOEFL과 같은 영어 시험 준비에 할애하는데,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특정 영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영어 시험 준비에 매진해야만 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우울증, 근심 걱정, 그리고 단지 좋은 영어 점수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지불해야 하고, 원하는 생활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 대체, 영어 점수가 뭐라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한단 말인가? 행복은 단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는 영어 점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비교적 오랜 기간 영어를 가르쳐 온 경험을 통해, 한국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영어 점수를 취득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로 인해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높은 영어 점수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많은 학생들이 높은 영어 점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지만, 높은 영어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실제 상황에서 영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에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는 그간 우리

미래내 단상

학생들이 영어를 대하는 방식이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영어는 학생들이 극복해야할 장벽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배울 때 더 많이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영어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본인에게 적당한 수준의 읽기 너무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책을 골라 소리 내어 읽거나, 좋아하는 팝송이나 게임을 통해 영어를 공부해 보는 것이다. 재미를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다면 분명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며, 실제로 이는 이미 많은 언어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왜 영어를 공부하느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늘 취직을 위해 공부한다고 대답한다. 취직은 왜 하느냐는 질문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머뭇거리거나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공부하고 취직을 하지만, 정작 살고 있는 이 순간은 행복하지 않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늘 이 어려운 순간만 지나면 행복할 것이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다. 마치 손수레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손수레 앞쪽에 꽂아둔 깃발을 뽑으려는 애를 쓰는 형상이다. 손수레를 세우고 깃발을 뽑으면 간단하데, 손수레를 멈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한다. 오히려 손수레는 멈추라고 하면, 손수레를 멈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미래의 행복만을 쫓아가느라 현재의 행복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 받았다. 행복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 존재한다. 다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행복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이다.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늘 원하는 환경을 찾으려고 애쓰고, 원하는 환경을 찾지 못하면 직접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할 것이고, 열심히 하면 잘 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영어를 공부해야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영어 공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필자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교수
응원언어학 전공

학과/연구소 소식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에서는 5월 14일(화)~16일(목) 학술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충북 옥천과 충남 공주, 부여 일대의 문헌관 및 박물관, 문화유적 등을 둘러보고 판소리도 체험했으며, 답사 둘째 날 저녁에는 신입생·복학생 환영회를 겸하여 교수와 학생의 유대감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한글학회가 주최하는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 대회가 5월 25일(토) 인문과 412호에서 열렸다. 부산지역 각 대학의 학생들이 국어학·국어교육·언어학·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연구한 7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국어국문학과 김원태(4) 학생이 「중속접속문의 부사절 처리 가능성 연구」를 발표하여 논문주제상을 수상하였다.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의 현장학습인 중문인 한마당이 4월 3일(수)~4일(목) 통영에서 마련되었다. 새내기과 재학생, 교수 등 약 90명이 참여한 중문인 한마당은 통영일대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교수와 학생,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중어중문학과는 대외교류본부에서 지원하는 '학과/대학단위 학생파견사업'에 정규학과와 계절학과에 모두 선정되어 하계 계절학기에는 중국 산둥대학 위해(威海) 캠퍼스로, 정규학기에는 상해교통대학으로 선발학생들을 파견한다. 계절학기 파견학생은 모두 26명으로 6월 30일(일)에 출국하여 7월 21일(일)에 귀국했으며, 정규학기 선발학생 5명은 상해교통대학 2학기 수업 일정에 맞추어 9월 4일(수) 출국한다.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는 5월 2일(목) 금정산성 동문에서 야외수업을 실시하였다. 8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전공에 대해 토론하고 게임도 하였으며,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수들과의 유대를 긴밀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일부 재학생들은 교수와 함께 등반도 하며 기억에 남을 추억을 쌓았다. 그리고 4월 4일(수)과 4월 30일(화)에는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학위논문 중간발표회가 있었다.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학·번역전공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5월 15일(수) 전공교수들과 함께 금정산일대로 봄 산행을 다녀왔다. 6월 1일(토) 대학원연구실에서 제1회 오픈 캠퍼스가 열렸는데,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과소개와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6월 24일(월)~7월 1일(월) 7박8일간 동학과 학생회 학생들은 경상남도 함양군 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였다. 봉사기간동안 학생들은 농촌주민들과의 연대 뿐 아니라 봉사정신 또한 함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과소개와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6월 24일(월)~7월 1일(월) 7박8일간 동학과 학생회 학생들은 경상남도 함양군 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였다. 봉사기간동안 학생들은 농촌주민들과의 연대 뿐 아니라 봉사정신 또한 함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는 대동제 기간에 'midnight in Paris'라는 제목의 주막을 운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6월 23일(일) 부산지역 내 5개 대학교 프랑스 관련학과 연합파티가 해운대 블루오프너에서 열렸다. 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소재의 프랑스 관련학과들은 상호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했다.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는 6월 1일(토)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독일오월축제(Maifest)에 참가했다. 독일오월축제는 부산 소재 대학 및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독일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독일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인데, 부산 거주 독일인들도 함께 한다. 5개 대학(부산대, 해양대, 동아대, 부산외대, 경성대)이 매년 돌아가면서 주최하며, 각 대학마다 독일전통춤, 독일가곡, 독일어 연극 등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독일산 수제 소시지 등 전통 음식과 독일 맥주도 맛볼 수 있다. 또한 독일문화원, 독일출판사(Hueber, Langenscheidt 등에서 전시하는 팜플렛을 통해 독일유학 및 독일교재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독일소재 어학원에서 독일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6월 24일(월)~7월 1일(월) 학생들은 함양 외마마을로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다. 8일가량 외마마을에 머물면서 비닐 제거작업, 잡초제거, 비료치우기, 감자 캐기 등 농사일을 도우면서 노동의 의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과에서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러시아 카잔 연방대학교 국제학술교류 협정 체결"을 기념한 사진전에 참가하였다. 카잔 대학교는 1804년 알렉산드르 1세의 명으로 세워졌으며, 1825년에 완공된 대학 본관은 1996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동대학교 법대에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수학했고 레닌도 종퇴했을 만큼 러시아에서는 유서 깊은 대학교 중 하나이다. 이번 교류 협정으로 양교 간에 교환학생을 파견하게 되었으며, 오스마코프 러시아 총영사와 인문대학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하여 노문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문학과



한문학과에서는 매년 학교 축제기간에 맞추어 '한문학과 학술축전'을 개최한다. 3부로 나누어 학부졸업논문발표회, 효원성년제, 그리고 간담회를 겸한 한문인 한마당을 실시하는데, 그 중 올해로 15회를 맞은 효원성년제는 인문관 앞 소공연장(필로티)에서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5월 28일(화)에는 「석곡 이규준의 현대적 의미와 학제간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문학과에서는 매년 학교 축제기간에 맞추어 '한문학과 학술축전'을 개최한다. 3부로 나누어 학부졸업논문발표회, 효원성년제, 그리고 간담회를 겸한 한문인 한마당을 실시하는데, 그 중 올해로 15회를 맞은 효원성년제는 인문관 앞 소공연장(필로티)에서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5월 28일(화)에는 「석곡 이규준의 현대적 의미와 학제간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심포지엄이 열렸다.

언어정보학과



언어정보학과는 대동제(5월 13일(월)~16일(목)) 기간 중 이틀 동안 넉터에서 주막을 열었다. 주막에서는 교수와 재학생, 졸업한 동문들이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5월 25일(토) 부산한글학회 주최로 제20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가

학과/연구소 소식

열렸는데, 09학번인 이종우·전종일 학생이 참가하여 자료분석우수상을 수상하였다. 6월 1일(토) 인문관 315호에서 열린 언어정보학과 의 PNU 오픈캠퍼스에는 총 80여명이 지원하여 학과와 전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상담하였다. 6월 24일(월)~7월 1일(월) 경남 함양군 백전면 중기마을에서 이루어진 언어정보학과의 여름농활에서는 학과생들이 감자캐기, 잡초제거, 모내기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어른들의 일손을 도왔다.

사학과



사학과는 6월 1일(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NU 오픈캠퍼스의 일환으로 예비대학생들에게 학과소개와 생활, 졸업 후 진로 등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학과학생회와 학과구성원들을 주축으로 학과사무실과 학교의 지원 아래 단순한 학과소개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과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학과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하여 사학과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관심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5월 13일(월)~16일(목) '대동제' 기간 동안 열린 사학과 주막은 학업과 대학생활에 지친 학우들에게 활력소가 되었다.

철학과



철학과는 5월 30일(목) 인문관 309호에서 단국대 흥미정 선생과 함께 「이슬람 공동체와 타종교 공동체들」이라는 제목의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철학과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여러 학자가 참석했다. 흥미정 선생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고자 이슬람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이슬람 공동체와 기독교 및 유대교 공동체가 맺었던 공동체(7세기~11세기)의 서약,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의 학문적 기여를 중심으로 발표를 전개하였다. 참석자들은 서구의 이슬람 세계에 대한 오해의 원인, 현대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문화 계승 상황 등을 상세하게 질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슬람 공동체 및 타종교 공동체의 평화 공존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고고학과



고고학과의 학부 2학년생 30명은 5월 7일(화)~10일(금) 3박4일 동안 김해 진례 두산요에서 토기소성실습을 했다. 가마를 보수하고, 토기도 직접 만들어 소성해보면서 실습을 진행하였다.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의 제32차 연구단 학술발표회가 6월 27일(목) 하상복, 서민정 HK교수의 발표로 밀양캠퍼스에서 열렸다. 매달 열리는 인문학 단

론모임에서는 “조선시대 장애인, 차별받지 않았다.”(4월: 고려대 정창권 교수), “몸의 정치”(5월: 송실대 박준상 교수), “이중국적 시인 누구치 요네지로(野)구(口)미(米)차(次)랑(郎)”의 〈자기번역〉(6월: 영남대 호리 마도카(堀まどか) 교수)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17강에서 19강까지의 연속기획특강은 “화이트 시티를 떠나며: 문명과 폭력, 그리고 윤치호”(연세대 헨리 임), “레비나스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이화여대 김혜령), “20세기 전반기 독일의 동성애 담론과 나치즘”(동아대 김학이)이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졌다. 5월에서 7월에 걸쳐 매주 도서관 관계자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인 “도서관, 인문학을 듣다” 강연도 진행되었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학술지인 『로컬리티 인문학』 9호와 『한국민족문화』 47집이 각각 4월과 5월에 발간되었으며 HK로컬리티인문학연구단의 로컬리티 연구총서, 번역총서, 자료총서, 교양총서도 연속 발행되었다. 4월 20일(토) 함안군과 공동주최한 아라가야 왕조 계보정리를 위한 제1차 학술대회인 「안라국의 발전과 대외교섭」에서는 5명의 발표자가 발표를 했다. 부산금정도서관과 공동주최한 시민강좌 “열린 인문 아카데미”(4월 4일~25일[4강])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과 공동주최한 시민강좌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인문학”(6월 11일~7월 11일[10강좌]), 역사문화답사 “옛길을 걷다”(6월 19일) 행사도 열렸다. 4월 15일(월) 〈재일사학자 이진희 선생 1주기 추모전 및 도서관(주식)〉이 총장, 연구소장, 인문대학장, 도서관장, 박물관장, 이진희선생 유족 및 제자 4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도서관 4층 자료정보실에서 있었다.

점필재연구소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에서는 “옛 사람을 오늘의 길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2013년 제5회 〈인문고전 독서교실〉 총5강좌 중 제2강의 개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인문고전 관련 저자를 초청하여 강의와 독서토론 주제별 글쓰기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인문고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오전에는 저자 초청강좌, 오후에는 참가학생 모듬토론 및 주제별 글쓰기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8월에는 〈인문고전 독서캠프〉로 1박2일 동안 34강좌가 진행되었다. 최근 점필재연구소는 여러 권의 신간을 발행했는데, 그 가운데는 우쯔지에(吳志杰) 교수의 『중국전통역론전제연구中國傳統譯論專題研究』(상해: 譯文出版社, 2009)를 번역한 『고전번역담론의 체계』, 문명사적 전환기 고전과 번역이 지닌 의미를 고찰한 14편의 논문들을 함께 엮은 『한국 고전번역학의 구성과 모색』, 동아시아가 근대 서구문명(고전)의 정수를 ‘번역’한 실천과 흔적들을 담고자 한 『동아시아, 근대를 번역하다—문명의 전환과 고전의 발견』 등이 있다.

배재정(영문 86) 동문, '제10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수상



개교 67주년을 맞아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각 계 동문 9명이 제10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으로 선정되었다. 그 가운데 인문대학 출신으로는 영어영문학과 86학번 배재정 제19대 국회의원(민주당)이 선정되었다. 배재정 국회의원은 부산일보에 19년간 근무하며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였고, 퇴사 후 부산문화재단 홍보팀장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19대 국회의 민주당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민주당 대변인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식은 지난 5월 14일(화) 오전 11시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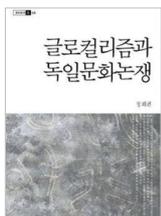
조한제 동문(영문 79), KBS부산 총국장에 선임

신임 KBS부산방송 총국장에 조한제 동문이 선임되었다. 조한제 동문은 마산고등학교와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KBS부산방송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부장, 시사제작국장, 보도국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안국진 동문(불문 80), 『옛 그림으로 떠나는 낚시 여행』 발간

안국진 동문이 새 책 『옛 그림으로 떠나는 낚시 여행』을 발간했다. 『옛 그림으로 떠나는 낚시 여행』은 김홍도의 '조어산수'에서 정선의 '한암조어', 최북의 '한강조어'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옛 그림이 포착한 생생한 낚시의 현장에 들어가 실전을 방불케 하는 낚시 지식을 선보인다. 안국진 동문은 부산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뒤 남성여고 교사 생활을 거쳐 월간 '일요낚시'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지금은 낚시 전문 매거진 『바다낚시 & SEA LURE』를 운영하고 있다.



장희권 동문(독문 85), 『글로벌리즘과 독일문화논쟁』 발간

장희권 동문이 새 책 『글로벌리즘과 독일문화논쟁』을 발간했다. 현재 계명대 독일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장희권 동문은 저서 『글로벌리즘과 독일문화논쟁』에서 독일은 물론 지구 전역에서 일어난 풍부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다가올 한국 다문화사회의 인종차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임정배 동문(독문 79),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취임

지난 5월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 독어독문학과 79학번 임정배 동문이 취임했다. 임정배 동문은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피해와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어선재난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지방비 확대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MF구제금융위기로 2000년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했던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13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재도약에 나섰다.

신임교수 임용



| 노어노문학과 부교수 니나 비노그라도바
2013년 9월1일자로 니나 비노그라도바 교수가 노어노문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비노그라도바 교수는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동 대학원에서 『현대 러시아어에서의 독립 병렬 구조 연구(의미론과 기능)』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모스크바교통대학교, 러시아민족우호대학교, 러시아 사회대학교, 대만첸치대학교, 및 청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09년부터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객원교수로 재직하였다.

교수 연구년 및 국외파견

국외파견

박형섭(불어불문학과) | 프랑스 끌레주드프랑스, 1년(2013.3.1~)
권순복(언어학과) | 미국 메인대학교, 1년(2013.3.3~)
최덕경(사학과) | 중국 북경대학교, 1년(2013.8.20~)
임상택(고고학과) | 미국 오리건대학교, 1년(2013.1.21~)

연구년 B

한태문(국어국문학과) | 일본 광도대학, 1년(2013.4.1~)
서정희(중어중문학과) | 1년(2013.3.1~)
김옥영(일어일문학과) | 1년(2013.3.1~)
이준규(한문학과) | 1년(2013.9.1~)
채상식(사학과) | 1년(2013.3.1~)
박준건(철학과) | 1년(2013.3.1~)

교수동정단신

| 이현홍 교수(국어국문학과)가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였다.

| 조강희 교수(일어일문학과)와 김동철 교수(사학과)는 5월 16일(목)~19일(일)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지원하는 한일 양국 연구자의 공동 프로젝트 '対馬宗家文書朝鮮書籍簡調査'를 위해 대마도 역사민속자료관에 소장된 한글서간 자료를 조사하러 일본에 다녀왔다.

| 김용규 교수(영어영문학과)는 6월 23일(일)~7월 18일(목)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와 하버드대학 세계문학연구소 간의 협력구축 및 연구소 네트워크 공동세미나 참석 차 미국에 다녀왔다.

| 김태성 교수(독어독문학과)가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였다.

| 양영란 교수(노어노문학과)가 7월 1일자로 러시아센터장에 임명되었다.

| 김인택 교수(언어정보학과)가 7월 1일자로 인문학연구소장에 임명되었다.

| 최덕경 교수(사학과) 6월 27일(목)~30일(일)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 주관의 조선한국학 발전 관련 학술논단연발표자로 참석하러 중국에 다녀왔다.

| 박정심 교수(철학과)가 9월 1일자로 교수로 승진하였다

| 최우원 교수(철학과)는 5월 30일(목)~6월 5일(수)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6월 1일(토))된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논문발표를 하러 터키에 다녀왔다.

| 양은경 교수(고고학과)는 6월 28일(금)~30일(일) 한국연구재단 연구주제에 대한 자료조사 차 중국에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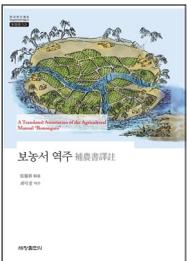
신간소개



『아레티노 평전』

곽차섭 지음, 서울: 도서출판 길, 2013

사학과 곽차섭 교수는 르네상스기 '군주를 벌하는 채찍'으로 불리어 왔던 풍자가 '피에트로 아레티노(Pietro Aretino)'의 일대기를 그린 『아레티노 평전』을 출간하였다. 아레티노는 16세기 초 르네상스 성기(盛期)라고 불리는 광휘의 시대가 낳은 주목할 만한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다. 그는 고전주의와 휴머니즘의 조류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머지않아 반(反)고전주의와 매너리즘의 경향이 득세할 것임을 일러는 전경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르네상스를 다룬 책에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단지 돈을 벌 욕심으로 음란한 책들을 쓰고 제후와 명사(名士)들에게 협박조의 편지를 보냈던, 수백 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온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통속작가라는 비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곽차섭 교수는 이러한 편견에 있어 이는 지나친 편견의 소신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아레티노는 르네상스기의 문화지형과 시대정신의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엘리트 계급의 위선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상하층 문화사이의 가교역할을 한 문화아이콘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르네상스는 '천재의 시대'라기보다 '괴짜의 시대'이며, '괴짜 아레티노'와 '괴짜들의 르네상스'에 담긴 함의와 그것을 둘러싼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기 바란다고 전하고 있다. 한겨레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에서는 이 저서를 서양사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트릭스터(경계인)에 주목해 방대한 사료와 논문을 섭렵하며 그의 삶을 세밀히 추적한 책을 한국 필자가 펴냈다는 점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번 평전은 아레티노의 주요 저작과 당대의 각종 문헌 등 1차 사료를 바탕 삼아 아레티노의 삶을 재구성하고 그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면서 엄밀하게 쓴 학술서지만, 르네상스와 서양 문화사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보농서 역주(補農書譯註)』

최덕경 지음, 세창출판사, 2013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학과 최덕경 교수가 명말청초(16~17세기) 가장 선진지역이었던 중국 강남 지역의 농업서인 '보농서'를 번역하고 주석한 『보농서역주(補農書譯註)』를 발간했다. '보농서 역주'는 4년에 걸친 부산대 '생태농서연구회'에서 최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관련 전공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종일토록 '보농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탄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값진 성과이다. 최덕경 교수는 원문 중심의 번역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주는 물론이고, 사진 및 각종 지도와 그림 등을 넣어 완성도 높은 역주서를 펴내고자 노력했다. '보농서 역주'는 명말청초(16~17세기) 변혁기를 맞은 중국 농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여타의 농서와는 달리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의 농업, 농촌 및 농민의 모습과 그 변화상, 즉 봉건사회의 해체과정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책의 첫머리에는 매달 강남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월령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전통적인 강남지역의 水田(논농사)과 상업 작물 및 부업의 실태를 되돌아 볼 수 있으며, 정치 및 기후 환경 등에 의해 급변하던 당시 농민들이 어떻게 적응해갔는가를 잘 보여주는 위기의 극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보농서는 같은 시기 조선시대와의 비교연구에도 유용한 가치를 지니며, 앞으로 양국의 농업사 비교연구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침묵의 공장』

복종하는 공부에 지친 이들을 위하여

강명관 지음, 서울: 천년의 상상, 2013

강명관 교수는 한국의 대학을 '침묵의 공장'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침단 테크놀로지로 관리되는 인간의 침묵, 인문학자의 침묵이 흐르고 있다"고 통탄한다. 자본-국가-테크놀로지로 구

성된 3각 외부구조가 대학과 인문학을 지배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이 구조 속에서 스스로 복종하는 공부에 길든다고 본다. 자본을 배경으로 삼은 국가기관, 즉 '학진'의 연구비 지원에 대학의 교수 등 인문학자들이 목을 매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자본의 통제와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서 이제는 인문학자들 스스로 복종의 공부를 견어치우고 자본과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대량생산의 유용성과 생산성 담론에서 벗어나 수공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지음, 부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개화기부터 광복 때까지 전국의 잡지 50여종에 실린 '지역성(locality)' 관련 기사를 발췌하고 지역별로 분류해 총서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 (전 11권·국학자료원)을 최근 발간했다. '신동아', '개벽', '삼천리', '신여성' 등 유명 잡지부터 '신문계', '야외' 등 희귀 잡지까지 망라했다. 이번 총서는 로컬리티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이다. 각 지역의 풍경, 역사와 고적, 지역경제를 움직인 지주와 자산가, 지역 여론을 주도한 지식인과 사회단체, 주요 사회 이슈에 관한 기사를 집대성했다.



『공간적 사유』

마이크 크랭·나이절 스리프트 엮음, 최병두 옮김, 서울: 예코리브르, 201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번역총서의 열 번째 책. 건축이나 실내 디자인에서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철학적이고 사회이론적 개념인 '공간'에 대해 본질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들은 발터 베나민, 비트겐슈타인, 라캉, 푸코 등의 철학 이론에 들어 있는 공간성을 설명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과 이를 통해 구성되는 어떤 사회 체계도 지리적 범위와 공간 바깥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아래로부터의 포스트식민주의』

로버트 J. C. 영 지음, 김용규 옮김, 서울: 현암사, 2013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와 함께 기획한 '우리 시대의 주변/황단 총서' 1차분 네 권 중 하나로, 포스트식민주의 개론서이다. 저자는 식민주의 영향력 아래 있던 지역을 '제3세계' 대신 '트리콘티넨탈(tricontinental·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로 칭한다. 한글 제목의 '아래로부터의'는 이들 지역의 실상을 보여주는 방법을 의미한다. 치밀한 소설적 서술로 현장감을 살렸다. 2인칭 서술로 독자를 파키스탄의 비참한 난민 처지로 몰아넣는다. 간디와 페미니즘, 이슬람의 베일, 알제리의 독특한 음악 장르 '라이'의 포스트식민주의적 의미를 탐구한다. 세계 각지에서 얻은 증언과 생생한 묘사가 읽는 재미를 더한다.



『경계에서 만나다: 디아스포라와의 대화』

서경식·서민정·김용규·이영일 지음, 서울: 현암사, 2013

부산대 인문학연구소가 펴낸 『경계에서 만나다: 디아스포라와의 대화』는 경계인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인문학연구소 연구자들이 서경식뿐만 아니라 재독 간호사 출신 최영숙, 송현숙 등과 나눈 대담, 중국 조선인 소설가 허련순, 부산에서 태어나 벨기에로 입양된 미희 나탈리 르무안 등 다양한 경계인들의 강연도 실려 있다. 인문학연구소는 근대성 극복의 계기나 발화 위치를 서양과 그 중심부에서 찾지 않고 주변과 주변성에서 탐색하기 위해 이 같은 기획을 했다.